



들끓는 '野都 광주'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홈개막전에 1만2500명의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새롭게 깔린 천연잔디 위에서 열린 첫 공식경기에서 KIA는 삼성을 꺾고 첫 승을 올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민 8이닝 11K 무실점 '에이스 본색'



11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KIA 윤석민이 선발로 등판,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홈개막전서 삼성 1-0 꺾고 시즌 첫승
최희섭 9회말 속죄타·김원섭 끝내기 볼넷**

호랑이 군단이 사자군단을 제물 삼아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개막전에서 김원섭의 끝내기 볼넷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9회 마운드를 물러받은 한기주는 올 시즌 KIA 첫 승의 주인공이 됐다. 윤석민과 윤성환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던 경기는 삼성 권혁의 공 하나에 승패가 갈렸다. 0-0으로 맞선 9회말 1사에서 앞선 세 번의 타석에서 침묵했던 안치홍이 1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돌아온 최희섭의 첫 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2·3루, 나지완의 고의 사구로 만루가 됐고, 김원섭이 바뀐 투수 권혁에게 볼넷을 골라내면서 3루 주자 안치홍이 마침내 홈을 밟았다. 윤석민이 에이스 본색을 드러내며 팀을 3연패 위기에서 구해냈다. 윤석민은 8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에이스의 견제'를 알렸다. 0-0으로 맞선 8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패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탈삼진도 11개를 뽑아내는 등 만점 피칭이었다. 에이스의 반전이었다. 윤석민은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7.45의 방어율로 2패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였다.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재구가 좋지 않았고 주무기인 고속 슬라이더도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다. 4월 자체 홈백전에서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보여준 슬라이더의 위력이 아니다"며 '아직이다'는 얘기를 했다.

선 감독으로부터 "경기를 하면서 나아져야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은 윤석민이었지만 첫 등판에서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선보였다. 이날 107개의 공을 던진 윤석민은 직구(41개)·슬라이더(47개) 위주의 투구로 삼성 타자를 요리했다. 직구구속은 154km까지 나왔고 최고 143km를 찍은 고속 슬라이더의 움직임도 좋았다. 돌아온 국민타자 이승엽과의 첫 대결에서 유격수 플라이, 포수 플라이, 1루수 앞 땅볼을 기록하며 완승을 거뒀고, '천적' 최형우에게도 볼넷을 하나 내주기는 했지만 두 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우위에 섰다. 총알 직구와 꿈틀거리는 슬라이더에 삼성의 방망이가 춤을 췄다. 윤석민이 이날 뽑아낸 11개의 탈삼진 중 8개가 헛스윙 삼진. 회심의 마구 팡볼에 최형우의 방망이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도 했다. 윤석민은 "더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첫 등판 만큼 무리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 팀이 승리해서 아쉬움은 없다"며 "이승엽 선배의 경우 공격적으로 치러는 게 보여서 몸쪽 승부를 하며 공략했다. 최형우 선배는 지난해와 똑같은 패턴으로 승부를 했는데 방망이가 따라나왔다. 팡볼로 두 번째 탈삼진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시범경기에서 슬라이더 각이 맞아서 고전했는데 팔 각도를 올리면서 각이 좋아졌다"며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사용했다. 탈삼진을 의식해서 던진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12일에는 KIA 박경태와 삼성 탈보트의 선발 맞대결이 벌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개막전에서 탤런트 박신혜가 시구한 공을 강운태 광주시장이 시타를 하고 있다. 박신혜는 '랜디신혜'라는 별칭에 걸맞게 완벽한 시구폼을 선보였다. /김진수기자 jeans@

첫안타 이용규 "웃는 게 웃는 게 아냐"

KIA 덕아웃 말말말

▲**섭섭했어** 거야 = 선수 시절 삼성 류중일 감독에게 만루홈런을 맞았던 얘기를 하던 KIA 선동열 감독. 신문 1면에 만루홈런 친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 '선동열 방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다. ▲**이용규 안 맞는다 안 맞아** = 타자들의 배팅훈련을 지켜보던 투수 서재응이 개막 2연전에서 8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외야수 이용규를 놀리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 서재응으로부터 구박 아닌 구박을 받은 이용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속이 개말개 됐다면서. 이용규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세 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다. ▲**방망이 걱정은 없겠네** = 타자들이 선동열 감독에게 선물 받은 방망이로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던 이견열 코치. 선수들이 방망이 선물을 자주 받는다면. ▲**그래도 너는 사람이라도 닮았지** = 투수 박경태, 개그맨 한민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내야수 홍재호의 얘기에. 박경태의 별명은 티벳여우다. ▲**편치 아껴두고 있어오** = 내야수 최희섭, 배팅훈련 도중 잘 맞은 타구가 답장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옆에서 한마디 하자. ▲**내가 타격코치야?** = 경기가 끝난 후 윤성환과의 대결이 어땠냐는 질문을 받은 투수 윤석민. 컨트롤이 좋은 투수여서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사 3루의 찬스 등 타선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답한 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